

잭킹바지선 2척 균등한 힘으로 들어올린다

맹골수도 40m 바닷속 세월호 인양 어떻게 하나

바지선 고정 작업 마쳐...와이어 걸기 10일 걸릴 듯

물살이 가장 잔잔한 소조기 내달 5일 인양 시도

3일에 걸쳐 반잠수식 선박 탑재해 목포신항으로 이송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은 어떻게 진행될까.

잠사 발생 3주기를 앞둔 4월 초순 진도 앞바다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관측되는 세월호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물 위까지 끌어 올려지고 목포신항으로 옮겨질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진도 맹골수로 수심 40m 아래 바닥에 눕혀진 세월호를 87km 떨어진 목포 신항까지 인양하는데 엔 크게 7단계의 작업 과정을 거친다.

우선 세월호를 물 위로 잡아당겨 띄우는 데엔 잭킹바지선 2척이 동원된다. 인양팀 은 중국에서 최근 세월호 사고해역으로 온 잭킹바지선과 세월호의 양끝을 연결하는 작업이 완료됐다. 바지선이 해류를 타고 흘러가지 않도록 고정할 것이다.

다음 작업은 세월호 선체에 미리 설치해둔 리프팅빔과 잭킹바지선을 단단한 쇠줄로 연결하는 작업이다. 잠수부들은 리프팅빔 33개의 양끝에 연결된 66개의 쇠줄의 절반을 각각의 바지선에 연결, 고정하는 작업을 현재 진행 중이다. 해수부 측은 이 작업을 10일 안에 끝마칠 계획이다.

다음 순서는 적당한 물때를 기다려 바닥에 가라앉은 세월호를 들어올리는 작업이다. 해수부와 인양업체 측은 이때를 4월5일로 전망하고 있다. 인양력(적당 2만3000t)이 뛰어난 잭킹바지선 2척은 쇠줄과 연결된 세월호를 줄다리기하듯 서서히 끌어

올린다는 방침이다. 선체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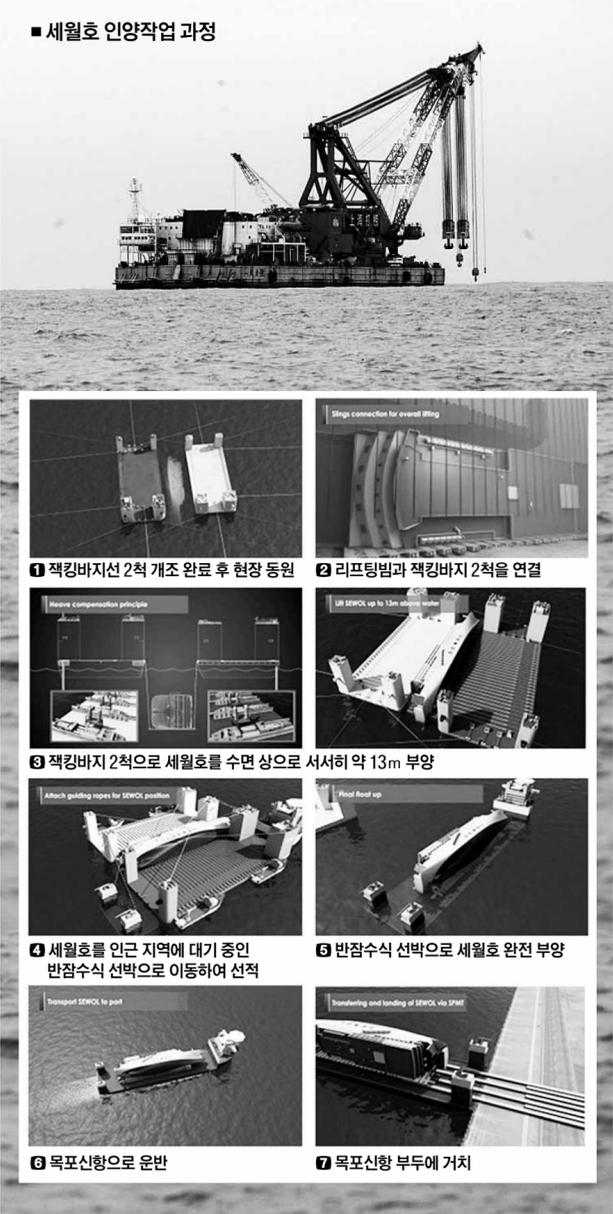
물 위 13m, 선체의 절반이 물 밖으로 올라온 상태로 세월호(선체 높이 28m)는 잭킹바지선 2척에 의지해 인근에 대기 중인 반잠수식 선박으로 향한다. 침몰해역과 1km가량 떨어진 물살이 잔잔한 안전지대로 끌고 가는 것이다.

가리앉아있던 세월호가 잭킹바지에 의해 들어 올려진 뒤 눕혀진 채로 반잠수식 선박에 선적되는 일련의 작업에는 3일가량 소요될 것으로 해수부는 전망하고 있다. 선체가 반잠수식 선박에 적재되면 87km가량 떨어진 목포 신항으로 운송된다. 기상 등 주변환경이 반쳐주고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늦어도 다음달 9~10일께 세월호가 물으로 올라온다는 것이다.

다만, 인양 작업이 파고 1m, 풍속 10.7% 이하인 소조기에만 가능하다는 점, 소조기가 15일 간격으로 찾아온다는 점에서 기상이 나쁘다면 다음달 5일 첫 인양시도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인양 당일의 날씨와 세월호를 끌어올릴 잭킹바지선 2척의 균형 유지가 작업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면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4월 5일 첫 인양을 시도해 목포 신항까지 같은 달 10일 세월호를 끌고 오는 전체 작업이 마무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 세월호 인양작업 과정

1 잭킹바지선 2척 개조 완료 후 현장 동원

2 리프팅빔과 잭킹바지 2척을 연결

3 잭킹바지 2척으로 세월호를 수면 상으로 서서히 약 13m 부상

4 리프팅빔과 잭킹바지 2척을 연결

5 세월호를 인근 지역에 대기 중인 반잠수식 선박으로 이동하여 선적

6 반잠수식 선박으로 세월호 완전 부상

7 목포신항으로 운반

8 목포신항 부두에 거치

전남 AI 매몰지 25곳 침출수 오염

관정 150곳 수질 조사

최근 몇 년간 조류인플루엔자(AI)로 살처분된 가축 매몰지 주변 다수 지하수에서 기준치 이상의 오염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가금류 매몰지 인근 관정 150곳 수질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하반기 25곳에서 기준치 이상의 오염물질이 검출됐다. 15곳은 대장균, 9곳은 질산성 질소, 1곳은 염소이온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질산성 질소가 검출된 곳 가운데 3곳은 농업용수로도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반기법 검사에서 2015년 하반기에는 3곳, 지난해 상반기 18곳 등 기준치 초과 비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전남도는 올해를 AI 발생에 따른 매몰지 주변 49곳도 검사 중이다. 39곳은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10곳은 시료를 채취해 검사가 진행 중이다도 전남도는 설명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매몰지 주변 오염물질 검출 비율이 높게 나오기는 했지만, 농사용 비료의 영향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철저분만을 오염의 원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매몰지 주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매몰지로부터 15일까지 주 2~3회, 6개월까지 월 1회, 3년까지 분기별 1회 침출수나 악취 발생 여부를 점검한다. 지난해 9월 AI가 발생한 강진 오리농장과 이 농장 부화장에서 새끼 오리를 분양받은 뒤 바이리스가 검출된 무안 농장은 모두 고병원성 H5N8형 확진 판정을 받았다.

올겨울 전남에서 발생한 AI는 모두 28건으로 늘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영광 바닷물서 올 첫 비브리오패혈증균

질병관리본부 주의 당부

영광 범성포구 바닷물에서 올해 처음으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확인됐다고 14일 질병관리본부가 밝혔다.

비브리오패혈증은 어패류를 날로 먹거나 덜 익혀 먹었을 때,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했을 때 감염될 수 있으며, 급성 발열과 오한·복통·구토·설사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 이후 24시간 이내에 발진·부종 등 피부 병변이 생기기 시작해 수포가 형성되고 점차 범위가 커지며 괴사성 병변으로 진행된다.

특히 간 질환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알코올 중독자, 백혈병 환자, 면역결핍 환자 등 고위험군은 치사율이 50% 내외로 높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어패류를 충분히 익혀 먹고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에 접촉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어패류를 집적하거나 조리하는 사람은 영하5도 이하 저온 보관, 수돗물로 씻기, 85도 이상 가열 처리, 장갑 착용, 사용한 조리 도구 소독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브리오패혈증은 일반적으로 해수 온도가 18도 이상 상승하는 5~6월에 첫 환자가 나오고 8~9월에 집중적으로 환자가 발생한다.

전문기자 e16621@

새마을 장학금 조례 폐지 입장 표명 요구에 광주시·의회·정당 등 ‘묵묵부답’

특히 비판이 제기된 ‘광주시 새마을 장학금 조례’ 폐지에 나설 것인지를 문서로 공식 답변해달라(광주일보 3월6일자 6면)는 공개 요구에 대해 광주시, 광주시의회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광주시민운동본부 측은 “광주시, 광주시의회, 6개 정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민주연합당, 노동당, 녹색당) 광주시당 측에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에 동의하는지’, ‘동의한다면, 다음 개회되는 광주시의회에서 집행부 또는 의원 발의로 조례안 폐기에 나설 의향이 있는지’ 등을 질의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광주시민운동본부 관계자는 “이번 주까지 각 기관에 입장 정리할 시간을 준 뒤 다음주 중 회의를 거쳐 대응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에 따라 새마을회 회원들에게 매년 2~3억원의 장학금이 지급되는 관행에 관한 조직 내부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입장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만 유선으로 광주시민운동본부에 알려줬다고 한다.

광주시민운동본부는 지난 4일 광주시, 광주시의회, 6개 정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민주연합당, 노동당, 녹색당) 광주시당 측에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에 동의하는지’, ‘동의한다면, 다음 개회되는 광주시의회에서 집행부 또는 의원 발의로 조례안 폐기에 나설 의향이 있는지’ 등을 질의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광주시민운동본부 관계자는 “이번 주까지 각 기관에 입장 정리할 시간을 준 뒤 다음주 중 회의를 거쳐 대응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광주 공공기관 고졸 의무 채용 외면

올 신규채용 11곳 중 2곳 뿐

광주시가 출자·출연한 공공기관들이 고졸 졸업자 인제 채용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43명 신규 채용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는 고작 2명에 그쳤다

14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광주시는 조례에 따라 매년 고졸자 고용촉진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지난해 관련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실제로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

조례에는 광주시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 등에서는 매년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5 이상을 고졸자로 우선 채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정원 30명 이상으로 제한해 실제 적용받는 출자·출연기관은 전체 20곳 중 11곳이다.

하지만 이들 기관은 거의 고졸 채용을 외면하고 있다. 11개 기관 중 고졸 신입사원을 채용한 곳은 광주과학기술진흥원과 광주복지재단 2곳뿐이다. 정원 102명의 광주복지재단은 지난해 3명을 채용했지만 올해는 1명에 그쳤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해 신규채용으로 17명, 올해 15명을 뽑았지만 이 중 고졸 졸업자는 1명도 없었다. 광주문화재단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올해 신규채용으로 각각 8명과 5명을 선발했지만, 고졸 졸업자는 보이지 않았다. 남도장학회, 광주신용보증재단도 고졸 졸업자를 채용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정원 100명이 넘는 곳은 광주도시공사·광주도시철도공사·광주환경공단 등 3개 기관뿐이며, 나머지 기관은 근무인원이 적은 데다 퇴직 등 채용 요인도 없어 고졸자 우선 채용이 곤란하다고 해명했다.

전문기자 e16621@kwangju.co.kr

바다 빠지던 차 막으려다 부상

바다에 빠지려던 자신의 승용차를 붙들어 세우려다가 70대 부부가 부상 사고를 당했다.

14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5분께 신안군 안좌도 음등선착장에서 김모(74)씨의 쏘울 차량이 해상으로 추락했다.

운전자 김씨가 선착장에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아 차량이 바다 쪽으로 밀려나 김씨 부부가 이를 막으려다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김씨가 얼굴과 팔 등을 다쳐 목포의 한 병원에서 이송됐으며, 김씨의 아내는 손목에 부상을 입었다. 김씨 부부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베란다서 무심코 버린 담뱃불 화재로 한바탕 소동



○아파트 주민이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운 뒤 손가락으로 튕겨

그다가 불티가 휴지 등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

○14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6분께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3층에 사는 양모(35)씨가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운 뒤 그늘에서 손가락으로 튕겼다가 불티가 재활용쓰레기에 튀어 화재가 발생

○경찰은 “화재는 양씨가 수돗물을 부어 직접 끄지만, 화재경보기가 울리고 대피방송이 나와 주민 1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고 혀를 끌ꭌ.

전문기자 e16621@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6개>

| 사건번호 | 물건번호 | 소재지 및 면적 [㎡] | 용도 |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 비고 |
|-------------------|------|--|-----|----------------------------|--|
| [아파트] | | | | | |
| 2016타경 10832 | 1 | 북구 동림동 645 삼의 115동 4층 403호 126.96㎡ | 아파트 | 210,000,000 | 2016타경63775(중복) |
| 2016타경 15790 | 1 | 남구 대남대로308번길13, 3층 306호 [월산동, 광전파크] 84.4978㎡ | 아파트 | 196,000,000 | |
| 2016타경 17635 | 2 | 남구 대남대로308번길13, 5층 505호 [월산동, 광전파크] 84.4978㎡ | 아파트 | 196,000,000 | |
| 2016타경 18256 | 1 | 북구 용봉동1235-3 6층 601호 83.82㎡ [현암시점관리비797, 160원미납, 인수여부불명] | 아파트 | 130,000,000 | |
| 2016타경 16854 | 1 | 동구 신수동 532-7 92.6㎡ | 대 | 55,572,800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최선순위 결정보다 빠른 입세대입이나 대형력유불명 |
| [대지/임야/전답] | | | | | |
| 2016타경 16980 | 1 | 화순군 능주면 안수리 58 992㎡ [현황묘지] | 전 | 9,919,950 | 지분매각, 공유자 관재남지분2/3전부, 분묘소재, 농지취득자격증명요, 원상회복여부불명] |

| 사건번호 | 물건번호 | 소재지 및 면적 [㎡] | 용도 |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 비고 |
|------------------|------|--|------|----------------------------|---------------------------------------|
| 2016타경 18560 | 1 | 영광군 군서면 안곡리 413-2 738㎡ | 답 | 7,822,800 | 농지취득자격증명요 |
| 2016타경 64624 | 1 | 광안구 요기동 산12-25 662㎡ [채무자이중 원지분 1/2,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 임야 | 7,282,000 | 지분매각, 일부묘지, 목전, 수목및분묘 [납골묘지제외] |
| [자동차, 중기] | | | | | |
| 2016타경 20952 | 1 | 사용번호기:광주 광안구 광비동113-37 [자동차 수련동768-1] 등록번호:94사1810 차명:코란도스포츠 연식:2013 | 자동차 | 16,000,000 | 보관장소:광주광역시 남구산정동156번 대주차장 |
| [기타] | | | | | |
| 2016타경 63614 | 1 | 나주시 남평읍 다남로 401 108.9㎡ 부속건 | 단독주택 | 14,878,530 | 지분매각, 일괄매각, 매각제외하고20㎡소재,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
| | | 나주시 남평읍 오거리 711 785㎡ [공부상권대 호순소유건물기재되어있으나현황소재불명] [2/15김기환지분전부] | 대 | 1,618,740 | 지분매각, 일괄매각,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
| 2016타경 63614 | 2 | 동소 710-1 64㎡ [현황대지, 매각제외건사소] | 임야 | 1,618,740 | 지분매각, 일괄매각,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
| | | 동소 711-2 112㎡ [창고제외, 경계불명측량요] [2/15김기환지분전부] | 대 | 1,618,740 | 지분매각, 일괄매각,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측과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청인이 매각결정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해당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합합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 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청을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일에는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생じた 경우 최저매각가격을 공유자 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17. 3. 29. [수]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7. 4. 5. [수]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장

5. 매각방법

① 입찰방법에 반치한 기일일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과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

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취급계약을 체결한 문서(입찰 보증서)를 준비하여 합니다.

② 2년 이상의 공표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양자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③ 입찰후의 약정에 불응하여 폐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전날 정오에 매각결과 통지서, 현물소재포고서 및 휴가서의 사본 등을 우편발행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열람한 통지서를 열람한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④ 최고가매수신청과 저순위매수신청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은 입찰결과 통지서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대금지급일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결정기일에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장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장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본상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 등본상권질서확인서 및 등본제정수첩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우체국법정등본을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한 후 등기를 확정하여야 합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 소유자, 소유지 등 또는 타당업자는 부동산 소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지장권 등이 설정된 날로부터 먼저 설정된 날로부터 매각이후 매수신청인으로서 매각을 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 집행권신장을 마친 집사인이 있을 때에는 그 양자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은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전날 정오에 매각결과 통지서, 현물소재포고서 및 휴가서의 사본 등을 우편발행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열람한 통지서를 열람한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에 내용은 매각결정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미납으로 인하여 매각허가 기일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불응한 시, 선봉금도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거나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매각결과통지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등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청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에 소정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집행이 종료됩니다.

⑦ 신청에 공고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청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편발행 게시판의 공고나 인터넷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제3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⑨ 매각된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ction.go.kr [법원공고] → 법원공고명세서(법원)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등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최고매각가격에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들의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특히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법원판정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없으며, 관할법원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판 매각기일과 공고나 인터넷 매각결정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7. 3. 15.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선주태